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이중언어교육의 요구 분석

진대연

(호원대학교)

강복정

(한국건강가정진흥원)

Jin, Dae-Yeon & Kang, Bog-Jeong. (2011). A needs analysis of the bilingual education for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Foreig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14, 177-20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needs of bilingual education for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specially the bilingual classes performed by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in Korea. Following a brief overview of the meaning and goals of bilingual education, the present study provides the results of the survey that was conducted on 45 program managers, 55 teachers, and 114 mothers of multicultural children who take bilingual classe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current status of the bilingual programs reflects that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For example, the number of Korean-Chinese bilingual programs is the biggest one as that of immigrant women through marriage from China. The findings from this research tell us that the programs play efficient roles for improving the bilingual abilities of multicultural children although there remain many problems in terms of systematized curricula, interesting materials, and teacher training. Most of respondents (managers and teachers) say that they need to have standard teachers' manuals and workbooks for better educational servic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lso show that it is urgent and important to enrich the substance of teacher training programs for enhancement of bilingual teachers' qualification.

Key Words: bilingual education, multicultural family,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teaching materials, teacher training

1. 서론

한국 사회의 다문화화는 1990년대 초중반부터 한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였던 '국제화'와 '세계화'가 내적 배경으로, 또한 그 이전부터 감지되었던 전세계의 '지구촌화'가 외적 배경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러한 변화의 직접적인 원인은 2000년대 이후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가 급증한 사회적 현상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국내의 다문화 관련 논의도 이러한 시류를 반영하듯 다양한 분야에서 활성화되기 시작한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가히 ‘다문화 논의의 전성시대’라고 할 만큼 다문화 또는 이주민 관련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¹⁾ 그런데 현재까지 다문화 관련 논의는 주로 동화주의적인 시각에서 사회의 통합과 소수자를 위한 ‘시혜’의 차원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세계적인 다문화 논의의 흐름과 우리 사회 발전의 중장기적인 측면을 살필 때 사회통합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원주의적인 관점에서 ‘공존-공생-공영’의 문제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해야 비로소 다문화 관련 논의가 사회 구성원 일부, 즉 이주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 그래야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이중언어교육의 문제도 일부 아동의 언어능력 신장이나 정서적 결핍 극복의 차원을 넘어 보편적인 아동의 성장과 사회적 언어 자원의 보존·확대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 달리 말해 다문화가정²⁾ 자녀의 이중언어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은 그들이 어머니(또는 아버지) 출신국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게 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들을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올바르게 성장하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언어적, 문화적 다양성을 증대시키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다음의 표 1에서 보이듯이 최근 국민의 배우자로서 한국 사회에서 살아 가게 된 결혼이민자는 2001년 이후 불과 10년 만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그 수가 5.7배 가량 증가하였다.³⁾ 그런데 이들의 대부분이 ‘결혼, 출산, 육아, 교육’의 생애주기를 겪는다는 사실로 볼 때 결혼이민자 자녀의 학령 접근 속도도 그만큼 빨라질 것이 자명하다.

1) 예를 들어 국내의 한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 사이트에 등재된 다문화 관련 논의를 살펴보면 1992년부터 2010년까지 총 533 편의 논문이 등장한다. 그런데 이 중 472편이 2006년 이후에 발표된 것이다(진대연, 2011).

2) 국내에서 다문화가정은 넓은 의미로 국제결혼 가정, 이주노동자 가정, 새터민 가정, 귀국 가정(재외동포 및 국외 장기체류 가정)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도 쓰이지만, 이 글에서는 좁은 의미로 국제결혼 가정, 즉 결혼이민자와 내국인 배우자의 가정을 의미하기로 한다.

3) 이 표에 포함되지 않은 혼인귀화자의 수도 2011년 10월 현재까지 58,294명에 이른다(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1년 10월호).

표 1

결혼이민자 체류현황(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1년 10월 31일 현재)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10
인원	25, 182	34, 710	44, 416	57, 069	75, 011	93, 786	110, 362	122, 552	125, 087	141, 654	143, 687
증감률 (전년 대비,%)	--	37.8	27.9	28.5	31.4	25.0	17.7	11.0	2.1	13.2	2.6

더욱이 결혼이민자 가운데는 1자녀 이상을 출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전체 아동 중 결혼이민자 자녀의 비율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다음의 표 2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2008년 현재 결혼이민자 자녀 중 59.6%가 초등학교 입학 이전의 연령대에 속한다. 또한 초등학교 연령의 자녀도 26.7%에 이룸으로써 언어 발달의 ‘결정적 시기’ 이전에 있을 아동이 전체의 86.3% 가량이나 된다.

표 2

결혼이민자 자녀의 연령별 현황(행정안전부, 2008년 7월)

구분	계	만6세 미만	만7~12세	만13~15세	만16~18세
자녀 수	103,484	61,700	27,568	7,785	6,431
비율(%)	100	59.6	26.7	7.5	6.2

이 자녀들이 모두 연령에 상관없이 한국 사회의 미래를 구성할 한 축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볼 때, 각 연령대에 맞는 다양한 교육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특히 학령 이전 또는 초등학교 아동에 대한 교육이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아동기가 발달의 기초가 되는 시기이며 제반 발달이 이루어지는 최적기이기 때문이다. 아동기 발달은 발달의 기초성, 적기성, 누적성, 불가역성 등(성영혜 외, 2001, pp. 94-96)으로 그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언어 발달 단계에서 아동기에는 어머니의 영향이 매우 크며 인지적, 정서적 발달 등 여타 영역의 발달이 언어 발달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만약 어머니(또는 아버지)가 외국 출신인 결혼이민자 자녀들이 부모 중 한 쪽의 언어나 문화를 제대로 접할 수 없게 된다면 이들의 언어적, 인지적,

정서적 발달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들이 부모의 언어에 고루 노출되게 함으로써 연령에 맞는 발달 단계를 순조롭게 이행하게 하는 교육적 배려로서 이중언어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이중언어교육에 대하여 논하려고 한다. 특히 최근 들어 국내에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지고 저변 또한 서서히 확대되고 있는 이중언어교실 운영과 관련된 요구의 분석에 초점을 맞춰 우리 사회에 바람직한 이중언어교육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하는 데 하나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중언어교육의 의미와 목적

이중언어교육(bilingual education)은 개인이나 사회의 이중언어사용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것으로 두 개(또는 그 이상)의 언어 교육 및 사용과 관련된다. 이중언어사용은 크게 개인적 이중언어사용과 사회적 이중언어사용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전자는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둘 이상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개인적 상태를 뜻하며, 후자는 이를 포함하는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언어가 동일한 상호작용에서 사용될 수 있고 다수의 이중언어사용자에 의해 이 언어들이 접촉하게 되는 사회적 상태를 의미한다(Hamers & Blanc, 2000, p. 6).

이중언어사용자에 대한 정의는 ‘두 언어를 모어 화자의 수준으로 유창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견해와 ‘모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중 최소한 한 가지의 언어능력을 보유한 사람’이라고 보는 견해로 대별된다. 그런데 이중언어사용 능력은 ‘모어 화자처럼 유창하게’와 ‘최소한 한 가지의 언어능력’ 사이에 있는 어떤 특정한 지점으로 표시하는 것보다 하나의 연속체로 나타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중언어사용의 유형은 두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균형적/우세적), 인지 조직(합성적/대등적), 습득 연령(유년기/청소년기/성년기), 제2언어 공동체 환경의 존재 여부(내성적/외인적), 두 언어의 상대적 지위(가산적/감산적), 집단 구성원 및 문화적 정체성(이중문화적/단일문화적/문화변용적/탈문화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Hamers & Blanc, 2000, pp. 25-30). 그런데 개인의 이중언어사용 유형은 사회문화적 환경, 특히 공동체 내에서 두 언어가 차지하는 상대적 지위에 의해 결정되기 쉽다. 가까운 예로 국내의 이중언어교육에서 영어와 같이 사회적으로 높이 평가되는 언어와 그렇지 못한 언어에 대한 개인과 사회의 태도가 달라지고 그것이 아동의 이중언어 학습동기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들 수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이중언어교육의 주관심사가 한국어와 영어의 교육에 쏠려 있었기 때문에 이중언어교육의 근본적인 의미에 대한 논의는 학계의 틀을 벗

어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문제가 대두되면서 한국 사회의 소수언어와 한국어의 이중언어교육이 논의의 장에 나타나게 된 것은 아동교육과 언어교육에서 진일보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국내의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 이중언어교육은 한국계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과 여러 측면에서 상통하는 일종의 ‘계승어(heritage language)’ 교육으로서 그동안 우리가 소홀히 했던 분야에 속한다. 이를 국내의 이중언어교육에서 다룰 수 있게 된 것은 아동교육과 언어교육의 두 분야 뿐만 아니라 여타 관련 영역에서도 시야를 확대할 수 있는 동인으로 작용을 한다.

아동이 이중언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키우는 것은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결정이다. 왜냐하면 이는 아동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여러 요소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이중언어사용은 교육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영향을 수반하게 되므로 이와 관련해 매우 다양한 견해들이 제기되어 왔다. 한국이나 일본과 같이 주류집단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사회에서는 사회의 통합을 지향하는 진영에서 이중언어교육을 반대하는 경향이 있는데,⁴⁾ 그러한 반대는 교육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이유에서 나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한 개인이 이중언어를 사용하게 될 때 생기는 장점을 강조하는 진영에서는 의사소통적, 문화적, 인지적, 교육적, 경제적 측면 등의 이점을 부각시킨다.

개인적 이중언어사용의 한 축이 되는 계승어 교육은 교사의 부족, 교사교육의 접근성, 교육과정 자료의 부족 등 여러 한계를 내포하고 있지만, 그 의미는 캐나다교육협회에서 제시한 바 있는 캐나다 계승어 프로그램(Canadian Heritage Language Programs)의 장점으로 잘 요약된다(Baker, 2006, p. 281). 다음의 8가지 장점은 국내의 이중언어교육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 긍정적인 자아 개념과 자신의 배경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한다.
- 아동이 학교와 사회에 더 잘 통합되게 한다.
- 타인과 타문화에 대한 포용력을 증가시킨다.
-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을 촉진시킨다.
- 새로운 언어 학습을 수월하게 해준다.
- 취업의 가능성을 높인다.
- 가정과 학교 사이의 관계를 강화시킨다.
- 사회 공동체의 요구와 바람에 부응한다.

4) 중국도 대표적인 이중언어사회의 하나지만 그 경우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56개의 민족이 공존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소수민족 언어의 사용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바 한어(漢語)가 공통어(lingua franca)로서 사회 통합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 밖에 이중언어교육 수용의 긍정적 입장을 몇 가지 더 언급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엄마의 언어로 육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모어⁵⁾는 자녀와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해준다. 셋째, 모어는 자녀의 지능 발달, 학습능력 발달에 영향을 준다. 넷째, 이중언어는 중요한 자원으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권순희, 2009, pp. 69-72). 이러한 긍정적 효용과 더불어 권순희(2009, p. 67)는 다음의 3가지를 이중언어교육의 목표로 설정한다.

- 이중언어교육을 통하여 학업 성취 능력의 향상을 도모한다.
- 소수와 다수의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한다.
- 이중언어교육을 통해 자아 정체성을 확립한다.

이 가운데 ‘학업 성취 능력의 향상’은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이중언어교육에서 엄마의 모어보다는 한국어 습득과 더 관련이 깊어 보인다. 국내의 현실이 아직까지는 엄마의 모어로 내용 과목을 가르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고 실제 많은 선행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 한국어’ 능력 신장이 요구된다(조수진 외, 2008)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중언어교육 자체는 아동의 학업 성취 능력의 향상에 기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름의 이해와 인정’은 이중언어교육의 주요 목적이므로 당연히 언급되어야 마땅한 항목이며, ‘자아 정체성 확립’은 Baker(2006)에서도 제시하고 있듯이 아동이 긍정적인 자아 개념과 자신의 배경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하고 아동의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을 촉진시키는 이중언어교육의 주요 기능이자 목적이 된다.

III.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2010년 8월에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의 협조를 얻어 진행한 설문 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하였다.⁶⁾ 당시 조사 대상 기관은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운데 실제로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이중언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던 61개 센터로 선정하였다. 각 센터에서는 이중언어교실이라는 이름

⁵⁾ 여기에서의 모어는 일반적인 의미의 모국어 또는 제 1 언어라기보다는 ‘엄마의 모어’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의미로 ‘엄마의 모어’ 또는 ‘어머니 나라의 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⁶⁾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의 2010년 보고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중언어교실 운영프로그램 매뉴얼’의 소개 부분에서도 동일한 데이터에 근거한 보고가 언급되었기 때문에 조사 결과의 단순 분석에서는 일부 내용이 유사할 수 있음을 밝힌다.

으로 아동 대상의 이중언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 조사에서는 센터 관계자 중 이중언어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관리자, 이중언어교실에서 실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이중언어교실에 자녀를 참여시키고 있는 어머니 등을 설문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조사 대상에서 이중언어교실의 학습자인 아동은 제외하였다. 이들이 직접적인 교육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연령이 낮아 설문에 응답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설령 응답을 한다 하더라도 신뢰도를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 대신 관리자용, 강사용, 어머니용 설문 3종 모두에서 아동의 의견이나 만족도를 간접적으로라도 살펴볼 수 있도록 관련 항목들을 구성하였다.

설문을 의뢰한 61개 센터 중 45개소에서 조사에 응하였는데 이 가운데 응답자는 관리자가 45명, 강사가 55명, 어머니가 114명이었다. 응답자와 관련된 기초 통계는 다음의 표 3 및 표 4와 같다.

표 3

응답자 지역별 통계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제주	무응답	합계
관리자	5	9	4	0	1	4	0	1	3	5	1	3	2	6	0	1	45
강사	6	12	5	0	1	5	1	1	3	6	1	3	2	8	0	1	55
어머니	11	29	6	0	3	11	5	3	6	9	5	8	3	15	0	0	114
합계	22	50	15	0	5	20	6	5	12	20	7	14	7	29	0	2	214

표 4

응답자(강사 및 어머니)의 출신국가 등에 관한 통계

강사				어머니	
대한민국	1명(1.8%)	출신국가		대한민국	25명(21.9%)
중국	36명(65.5%)			중국	57명(50.0%)
베트남	14명(25.5%)			베트남	20명(17.5%)
기타	4명(7.2%)			기타	12명(10.5%)
합계	55명(100%)			합계	114명(100%)
20대	17명(30.9%)	연령대		20대	18명(15.8%)
30대	28명(50.9%)			30대	67명(58.8%)
40대	9명(16.4%)			40대	29명(25.4%)
50대 이상	1명(1.8%)			50대 이상	0명(0%)
합계	55명(100%)			합계	114명(100%)
3개월 이하	28명(50.9%)	교수 경력	결혼 기간	3년 이하	4명(3.5%)
~6개월	19명(34.5%)			~5년	16명(14.0%)
~1년	4명(7.3%)			~7년	29명(25.4%)
~3년	2명(3.6%)			~9년	25명(21.9%)
4년 이상	2명(3.6%)			10년 이상	40명(35.1%)
합계	55명(100%)			합계	114명(100%)
초등학교 졸업	0명(0%)	학력		초등학교 졸업	2명(1.8%)
중학교 졸업	2명(3.6%)			중학교 졸업	19명(16.7%)
고등학교 졸업	18명(32.7%)			고등학교 졸업	40명(35.1%)
2~3년제 대학 졸업	13명(23.6%)			2~3년제 대학 졸업	21명(18.4%)
4년제 대학 졸업	16명(29.1%)			4년제 대학 졸업	30명(26.3%)
대학원 이상 졸업	6명(10.9%)			대학원 이상 졸업	1명(0.9%)
무응답	0명(0%)			무응답	1명(0.9%)
합계	55명(100%)			합계	114명(100%)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강원과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 골고루 퍼져 있다. 특히 경기 지역의 응답률이 눈에 띄게 높았다. 출신국가는 강사와

어머니 모두 중국, 베트남의 순으로 타 국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어머니의 21.9%가 대한민국 출신이라고 응답한 것이다. 이는 실제로 그만큼의 한국 출신 어머니가 자녀를 이중언어교실에 보내고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결혼이민자 중 이미 귀화를 한 어머니들이 출신국가를 묻는 질문을 현재의 국적을 묻는 것으로 이해했거나 자신이 현재 한국 사람이라는 점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려 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⁷⁾

연령대를 살펴보면 강사와 어머니 모두 30대가 각각 50.9%와 58.8%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20대 강사가 30.9%, 40대 어머니가 25.4%로 각각 2위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의 이주 여성이 강사로 활동을 한다는 것과 아동의 어머니들은 출산과 육아의 기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연령대가 비교적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강사의 교수경력과 어머니의 결혼기간을 비교해 보면, 강사 가운데 85.4%가 교수경력 6개월 이하이며 어머니 중 82.4%가 결혼기간 5년 이상이었다. 학력 면을 보면 강사와 어머니 모두 고졸이 1위(32.7%와 35.1%), 4년제 대졸(29.1%와 26.3%)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2. 연구 방법

우선 2차에 걸쳐 이중언어교실을 참관하여 실제 이중언어교육 현장을 살펴보고 관련자 면담을 실시하였다. 두 차례 참관은 모두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의 베트남어 이중언어교실을 운영 중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수행하였다. 서울 성북 센터(7월 1일)와 인천 남동 센터(7월 13일)를 방문하여 이중언어 교사의 수업 모습과 아동의 참여 형태를 관찰하여 이중언어교육의 요구조사 방향을 확인하고 수정하였다. 다음의 그림 1과 그림 2는 1차와 2차 참관 당시의 상황을 보여 주는 사진이다.

그림 1

서울 성북 센터 이중언어교실



그림 2

인천 남동 센터 이중언어교실



⁷⁾ 이 설문에 대한 응답만으로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기가 어렵지만, 결혼이민자 또는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이나 관련 통계를 근거로 그렇게 추정해 봄직하다.

2010년 8월 9일부터 8월 16일까지 8일 동안 실시된 요구조사에는 전국 61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 45개소에서 회신을 하였다. 각 센터별로 관리자 1명, 담당 강사 1~2명, 어머니 2~3명 정도가 응답함으로써 관리자 45명, 강사 55명, 어머니 114명 등 총 214명의 의견이 수합되었다(세부적인 내용은 앞의 표 3 참조).

관리자용, 강사용, 어머니용의 3종으로 구성된 설문지 중 관리자용과 강사용은 응답자가 문항을 읽고 직접 의견을 적게끔 하였지만 어머니용은 설문지의 내용을 응답자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교실 강사 또는 통번역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게끔 하였다.

조사의 방향은 설문지 3종 모두 ‘이중언어교실에 대한 의견 조사’라는 틀로 묶어 설정하고, 그 내용은 이중언어교실의 현황과 이중언어교실의 발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조사 항목은 다음의 표 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설정된 각 항목들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빈도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생각이나 느낌의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리커트 척도(7점)에 따라 세부 항목별 평균을 비교하였다. 각 항목의 분석에는 MS EXCEL 2007과 윈도우용 SPSS 13.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표 5

설문의 영역과 항목

	영역	항목
관리자용 (14문항)	1. 이중언어교실과 학생에 대한 일반 사항	지역, 개설 언어, 개설 횟수, 회당 시수, 전체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학생의 태도와 능력, 운영의 목적·취지, 운영의 효과, 확보 자료
	2. 이중언어교실의 발전에 대한 의견	매뉴얼·지침서의 필요성, 워크북의 필요성, 강사의 자격, 지원 단체에 대한 건의사항
강사용 (21문항)	1. 자신에 대한 일반 사항	출신국가, 연령대, 교수경력, 학력
	2. 이중언어교실과 학생에 대한 일반 사항	지역, 개설 횟수, 회당 시수, 학급당 학생 수, 학생의 태도와 능력
	3. 이중언어교실의 수업에 대한 사항	수업중 사용언어, 수업준비 시간, 수업준비 방법, 수업준비 시 중시 부분, 수업진행 시 사용자료, 수업 진행 시 활동 형태

	4. 이중언어교실의 발전에 대한 의견	매뉴얼·지침서의 필요성, 워크북의 필요성, 수업내용, 수업방법, 강사의 자격, 운영센터의 개선점
어머니용 (20문항)	1. 자신에 대한 일반 사항	출신국가, 연령대, 결혼기간, 학력
	2. 가정과 자녀에 대한 일반 사항	자녀의 수, 참여 자녀 수, 가정 내 사용언어, 자녀의 태도와 능력
	3. 이중언어교실 참여 관련 사항	지역, 참여 횟수, 참여 기간, 참여의 여건·의식, 참여 이유, 지속 참여 의향, 성취 정도에 대한 기대 수준
	4. 이중언어교실의 발전에 대한 의견	수업내용, 수업방법, 수업자료, 강사의 자격, 운영센터의 개선점

IV. 연구 결과

1. 응답 주체별 분석

1) 이중언어교실 관리자

이 조사에 응한 이중언어교실 관리자의 지역별 분포는 앞의 표 3에서 보인 바와 같이 강원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12개 시도에 걸쳐 있다.⁸⁾ 이중언어교실에서 가르치는 언어를 묻는 질문에는 복수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는데, 45개 센터 가운데는 중국어 이중언어교실을 운영하는 곳이 40개소, 베트남어 이중언어교실을 운영하는 곳이 17개소였다. 그 밖에 일본어와 필리핀(타갈로그)어를 가르치는 센터가 각 2개소였으며, 태국어, 몽골어, 영어를 가르치는 곳이 각 1개소씩 있었다. 2개 이상의 이중언어교실을 운영하는 곳이 15개소였으며, 그 중 3개의 이중언어교실을 운영하는 센터가 2개소, 4개의 이중언어교실을 운영하는 센터가 1개소였다. 이를 정리하면 45개 센터에서 모두 64개의 이중언어교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한 달에 이중언어교실을 운영하는 횟수는 8번 이상이 31개소(68.9%), 4~5번이 9개소(20%)로 1, 2위의 응답을 차지하였다. 회당 수업시간은 1시간 이내가 32개소(71.1%)로 가장 많았다. 각 센터별로 이중언어교실에 참여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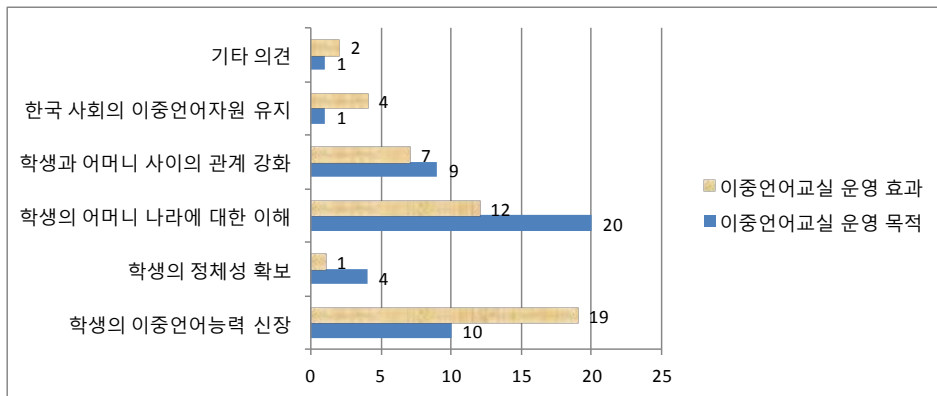
⁸⁾ 무응답의 경우가 1건 있는데 이 조사에서 관리자용 설문은 대개 강사용 및 어머니용과 같이 수합된 것으로 볼 때, 이는 충북 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전국 13개 시도 지역에서 응답이 온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있는 학생 수는 11~20명이 20개소(44.4%), 10명 이내가 19개소(42.2%)로 거의 비슷하였다. 또한 수업당 학생 수는 8~10명이 18개소(40%), 11명 이상이 15개소(33.3%)로 1, 2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센터에서 이중언어교실을 운영하면서 가장 중시하는 목적 또는 취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는 학생의 어머니 나라에 대한 이해라고 한 경우(20명, 44.4%)와 학생의 이중언어능력 신장이라고 한 경우(10명, 22.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질문과 동시에 이중언어교실을 운영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효과 중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것을 묻는 항목에서는 19명(42.2%)이 학생의 이중언어능력 신장을, 12명(26.7%)이 학생의 어머니 나라에 대한 이해를 꼽았다.

그림 3

이중언어교실 운영 목적과 효과의 비교



현재 확보하고 있는 자료 중 가장 많은 것은 18명(40%)이 어린이용 책을, 두 번째로 많은 것은 13명(28.9%)이 그림카드나 단어카드를 선택하였다. 그 밖에 어린이용 CD 나 DVD, 인터넷 사이트, 아이들 놀이와 활동, 어머니 나라와 관련된 물건, 자체 제작한 교재, 워크북 또는 복사물, 매뉴얼이나 교사용 지침서 등은 확보 정도가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이중언어교실 강사

조사에 응한 강사의 지역별 분포도 전국 13개 시도 지역에 고루 걸쳐 있었다. 한 달에 이중언어교실을 개설하는 횟수는 8번 이상이라는 응답이 33건(60%), 4~5번이라는 응답이 14건(25.5%)으로 1, 2위의 응답을 차지하였다. 회당 수업시간은 1시간 이내라는 응답이 38건(69.1%)으로 압도적이었다.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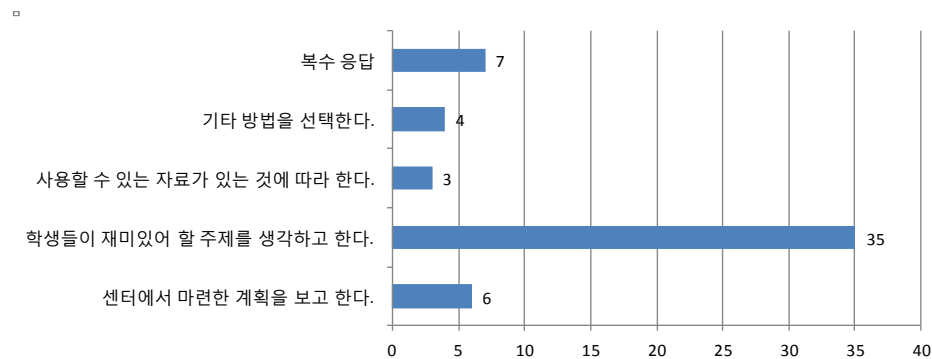
업당 학생 수는 8~10명이라고 한 응답자가 20명(36.4%), 11명 이상이라고 한 응답자가 18명(32.7%)으로 많이 나타났다.

수업 시간에 주로 사용하는 언어로는 한국어를 선택한 강사의 경우가 34명(61.8%)으로 과반수였으며 15명(27.3%)이 학생 어머니 나라의 말이라고 하였다. 이의 후속 질문으로 제시된 현재 이중언어교실에서 가르치고 있는 언어가 무엇이나에 대한 응답으로는 중국어가 37건(67.3%), 베트남어가 14건(25.5%)으로 1, 2위를 차지하였다. 또 다른 후속 질문은 수업 시간에 각 언어를 몇 % 정도 사용하느냐는 것이었는데, 한국어를 50% 정도 사용한다는 응답이 17명(30.9%), 30%와 70%라는 응답이 각각 10명씩(18.2%) 있었다. 이에 비해 학생 어머니 나라 말의 사용 정도를 50%라고 한 응답은 14명(25.5%)이 1위를 차지하였지만, 40% 또는 30%라는 응답이 10명과 9명으로 큰 차이 없이 그 뒤를 이었다.

회당 수업준비 시간은 1시간 이상 2시간 이내가 26명(47.3%), 1시간 이내가 13명(23.6%)으로 많았다. 수업준비 시 주로 선택하는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과반수인 35명(63.6%)이 학생들이 재미있어 할 주제를 생각하고 한다는 응답을 하였다. 수업 준비 시 가장 중시하는 부분은 수업 목표를 세우는 것(21명, 38.2%)과 수업을 이해시키고 진행하는 방법을 찾는 것(16명, 29.1%)이라는 응답이 1, 2위로 높게 나왔다.

그림 4

수업 준비 시 주로 선택하는 방법



수업진행 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료로는 어린이용 책이라는 응답(24명, 43.6%)과 그림카드나 단어카드(11명, 20%)라는 응답이 1, 2위를 차지하였다. 이어서 수업진행 시 가장 자주 선택하는 활동 형태를 묻는 질문에는 교사와 전체 학생(12명, 21.8%), 짝 활동(11명, 20%), 모둠 활동(10명, 18.2%)이라는 응답이 거의 비슷한 수로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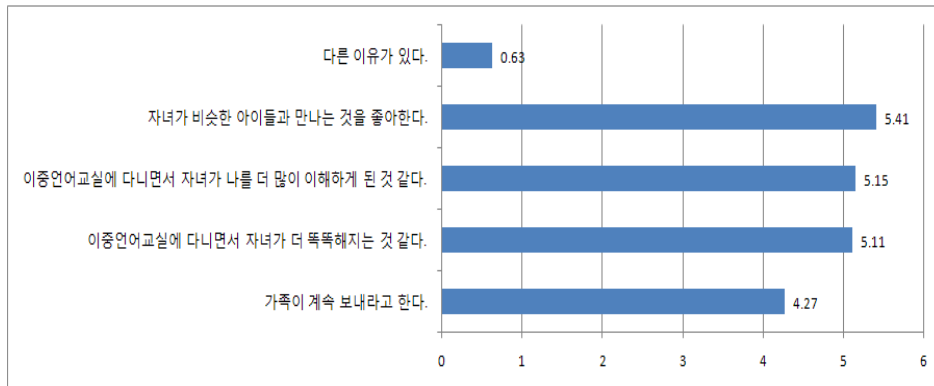
3) 다문화가정 자녀의 어머니

어머니의 지역 분포도 전국 13개 시도에 걸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들의 총 자녀수는 2명이라는 응답이 71건(62.3%), 1명이라는 응답이 33건(28.9%)으로 높았으며, 현재 이중언어교실에 참여시키고 있는 자녀의 수는 1명이라는 응답이 89건(78.1%), 2명이라는 응답이 22건(19.3%)이었다. 가정 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묻는 질문에는 한국어라는 응답(96건, 84.2%)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중언어교실에 자녀를 참여시키는 횟수는 한 달에 6번 이상이라는 응답자가 67명(58.8%), 4~5번이라는 응답자가 29명(25.4%)으로 많았다. 이중언어교실 참여기간을 묻는 질문에는 2~3달이 67명(58.8%), 4~5달이 39명(34.2%)으로 1, 2위를 차지하였다.

이중언어교실에 자녀를 참여시키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언어를 더 많이 알면 좋으니까’라고 응답한 경우(67명, 58.8%)가 ‘어머니를 더 잘 이해하게 하려고’라고 응답한 경우(30명, 26.3%)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자녀를 이중언어교실에 계속 보내겠냐는 질문에는 절대다수인 107명(93.9%)이 그러겠다고 응답을 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7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는데, 가장 높은 답으로는 ‘자녀가 비슷한 아이들과 만나는 것을 좋아한다’가 나왔다.

그림 5

이중언어교실 계속 참여 이유



이중언어교실에서 자녀에게 성취시키고 싶은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기본적인 인사말, 글자를 어느 정도 읽고 쓸 수 있는 정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단어, 집에서 어머니의 말을 이해하는 정도, 어머니의 고향 친척들과 어느 정도 대화할 수 있는 정도,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 등을 선택항으로 제시하였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복수응답이 비교적 많이 나왔으나 전체의

44.7%에 해당하는 51명이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까지라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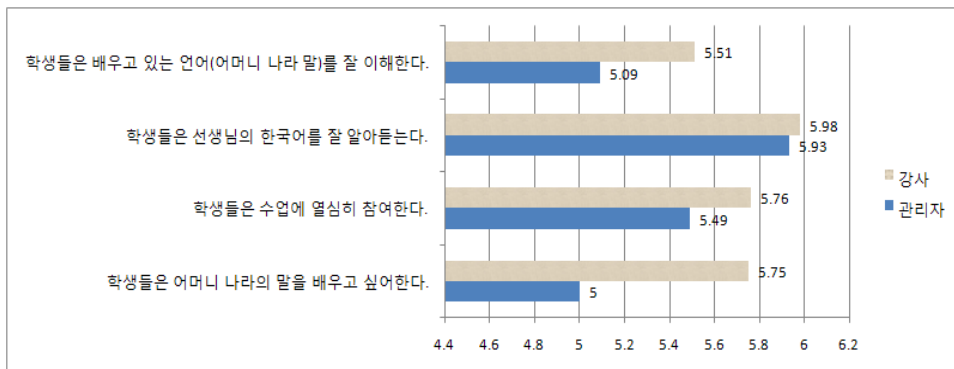
2. 응답 주체 간 비교

1) 학생(또는 자녀)의 태도와 능력

이중언어교실에 다니고 있는 학생의 태도와 능력에 대한 관리자와 강사의 인식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시한 항목은 ‘학생들은 어머니 나라의 말을 배우고 싶어한다, 학생들은 수업에 열심히 참여한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한국어를 잘 알아듣는다, 학생들은 배우고 있는 언어(어머니 나라 말)를 잘 이해한다’ 등이었다. 응답 결과는 항목별 7점 척도로 비교하였는데 두 집단 모두 ‘학생들이 선생님의 한국어를 잘 알아듣는다’라는 항목에서 가장 후한 점수를 주었다. 전반적으로 관리자가 강사에 비해 박한 평가를 내린 것이 특징이었으며, 특히 ‘학생들이 어머니 나라의 말을 배우고 싶어한다’에 대한 응답에서 그 차이가 컸다. 이는 대부분의 강사가 학생의 어머니와 같은 국가 출신인데 반해 관리자의 대부분은 한국인이기 때문에 생기는 인식의 차이로 보인다. 이중언어 강사의 경우는 대개 엄마 또는 고향 사람의 심정으로 이중언어교실에 참여하는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더 많은 애착을 가지며 이 수업과 관련된 사항들을 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6

이중언어교실 관리자와 강사의 학생의 태도와 능력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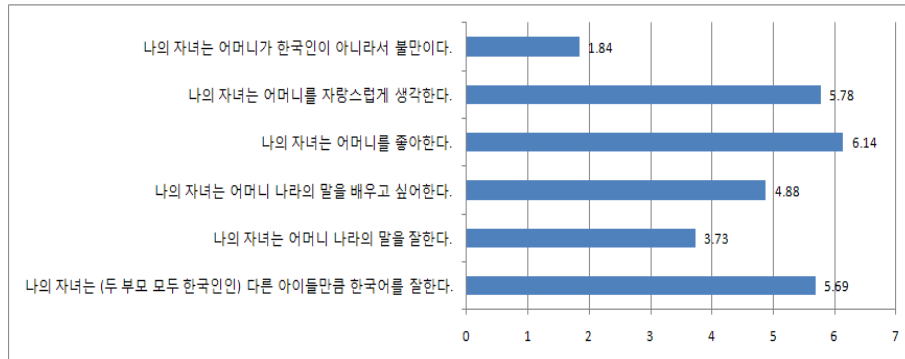


다음으로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자기 자녀의 태도와 능력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양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항목은 달리 하고 방식은 같게 해서 7점 척

도로 결과를 정리해 보았다. 전반적으로 자기 자녀들이 자신을 좋아하거나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여기고 있었으며 한국어 능력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에 비해 자녀들이 어머니 나라의 말을 잘한다거나 배우고 싶어한다고 보지는 않는 것 같았다.

그림 7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녀의 태도와 능력에 대한 인식



지금까지 관리자용, 강사용, 어머니용 설문지의 응답에서 다룬 사항들은 주로 응답자 자신 또는 이중언어교실에 대한 일반 사항과 현황 등에 대한 내용이였다. 이하에서는 ‘이중언어교실의 발전에 대한 의견’ 영역에 속하는 항목들을 중심으로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크게 이중언어교실 운영 매뉴얼 워크북의 필요성, 이중언어교실 수업내용 및 방법에 대한 의견, 이중언어교실 강사의 자격 및 운영센터에 대한 의견 등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이중언어교육의 요구를 살펴도록 하겠다.

2) 이중언어교실 운영 매뉴얼 및 워크북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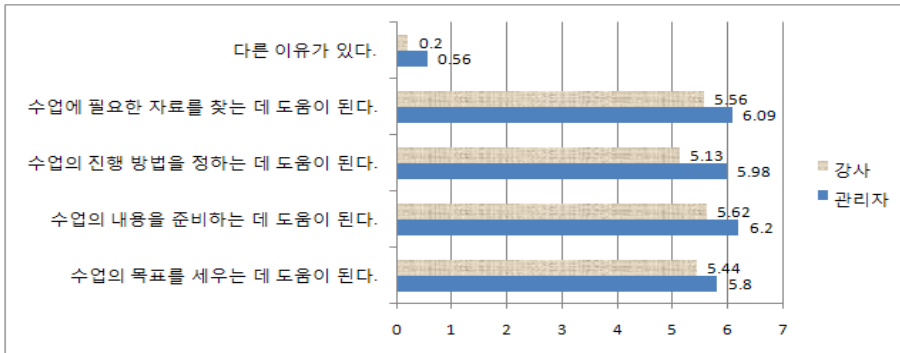
2010년 8월 현재 전국적으로 61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중언어교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의 이중언어교실에서는 결혼이민자 출신의 강사가 수업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자체적으로 교수요목을 작성하고 교재를 제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대다수의 강사들이 전문적인 교사라기보다는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원어민’에 불과하다 보니 스스로 만들어 가는 교수요목과 교재에 대한 자신감을 갖기가 쉽지 않았다. 따라서 참조할 만한 이중언어교실 운영의 지침과 표준화된 자료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 조사에서는 그러한 요구를 확인하고자 이중언어교실 운영 매뉴얼(교사용 지침서)과 워크북의 필요성에 대해서 관리자와 강사를 대상으로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설문에 응한 관리자 45명 가운데 43명(95.6%)과 강사 55명 중 49명(89.1%)이 교사의 수업 운영에 지침이 될 만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관리자 가운데 44명(97.8%)과 강사 중 50명(90.9%)에게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가 들어간 워크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림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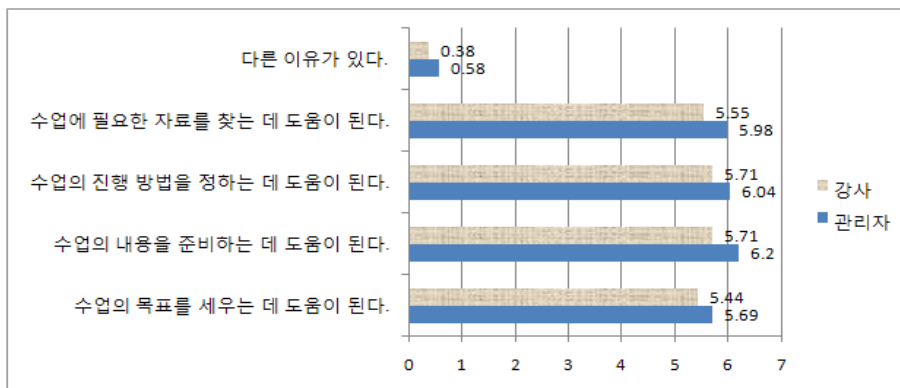
매뉴얼이 필요한 이유



매뉴얼과 워크북이 필요한 이유로는 ‘수업의 목표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 수업의 내용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수업의 진행 방법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 등의 예시를 들었다. 7점 척도로 각 항목에 체크하게 한 결과, 4개의 예시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없이 모두 꺾혔다. 그런데 매뉴얼과 워크북에 대한 질문이 예시는 같았지만 다른 문항으로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히 ‘수업의 내용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항목이 1위 응답이 되었다. 그 밖에 짚어볼 만한 사항으로는 두 질문 모두 관리자(한국인)가 느끼는 필요성이 강사(결혼이민자)가 생각하는 필요성보다 약간씩 높았다는 점이다.

그림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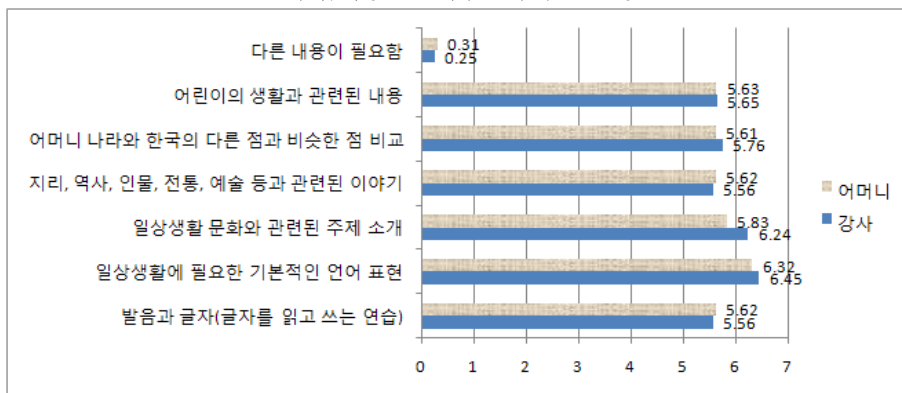
워크북이 필요한 이유



3) 이중언어교실 수업내용 및 방법에 대한 의견

이중언어교실의 수업내용 및 방법에 대해서는 강사와 어머니의 의견을 물어보았다. 세부항목별로 어느 정도 많이 필요하다고 느끼는지를 7점 척도로 확인하였다. 그 결과 수업내용에 대해서는 강사와 어머니 모두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언어 표현을, 수업방법에 대해서는 재미있는 활동을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림 10
수업내용 중 세부항목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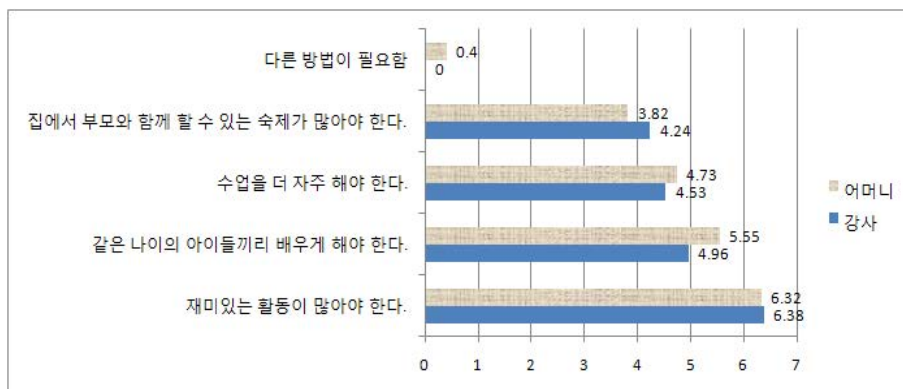


수업내용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발음과 글자(글자를 읽고 쓰는 연습),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언어 표현(인사, 숫자, 가족, 날씨, 색깔 등과 관련된 표현), 일상생활 문화와 관련된 주제 소개(음식, 집, 옷, 가족관계, 교통수단 등의 일상생활), 지리, 역사, 인물, 전통, 예술 등과 관련된 이야기(어머니 나라의 위치, 국가, 국기, 국화 등 포함), 어머니 나라와 한국의 다른 점과 비슷한 점 비교(문화적 차이와 관련된 내용), 어린이의 생활과 관련된 내용(학교생활, 놀이, 만화, 영화 등)’을 예시항으로 들었다. 자세한 응답 결과는 앞의 그림 10과 같다.

수업방법과 관련된 예시항으로는 ‘재미있는 활동이 많아야 한다, 같은 나이의 아이들끼리 배우게 해야 한다, 수업을 더 자주 해야 한다(수업 시간과 횟수를 늘려야 한다), 집에서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숙제가 많아야 한다’ 등을 제시하였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예시항별로 순위가 명확히 드러났는데 역시 아동들 대상의 수업이다 보니 두 집단 모두 재미있는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 또한 현재 이중언어교실에서는 영유아부터 중

학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자녀들이 혼합되어서 수업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 그런지 연령별 분반의 필요성도 2위의 응답으로 나왔다.

그림 11
수업방법 중 세부항목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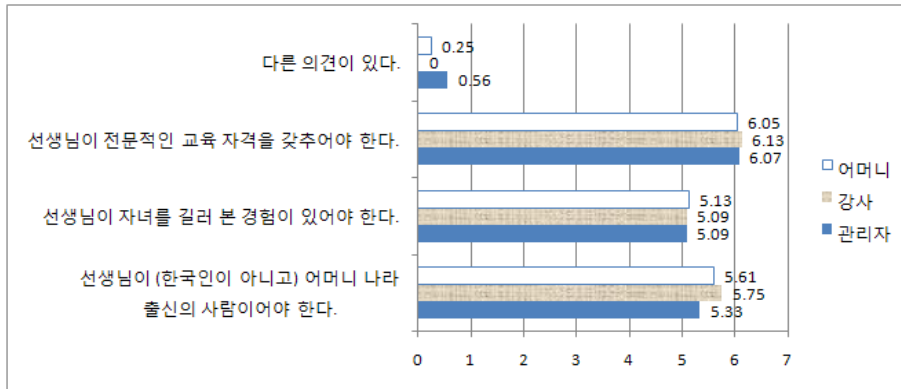


4) 이중언어교실 강사의 자격 및 운영센터에 대한 의견

이중언어교실 강사의 자격에 대한 질문은 3종의 설문지에서 공통적으로 제기하였다. 이 질문의 선택항으로는 ‘선생님이 (한국인이 아니고) 어머니 나라 출신의 사람이어야 한다, 선생님이 자녀를 길러 본 경험이 있어야 한다, 선생님이 전문적인 교육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등을 제시하였다. 응답 점수를 보면 관리자, 강사, 어머니 모두 선생님에게 필요한 자격으로 전문적인 교육 자격을 제일로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선생님이 한국인이 아니고 어머니 나라 출신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의견의 평균이 높았다. 자녀 양육 경험을 선택한 경우는 3위에 그쳤다.

이 설문에 응답한 이중언어교실 강사의 학력에서 고졸이 32.7%로 가장 많았다는 점과 비록 센터의 이중언어교실이 비정규 교육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이상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1위 응답의 이유를 풀이할 수 있다. 그리고 이중언어교실에서 어머니 출신국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선생님이 되어야 하므로 주로 어머니 나라 출신의 사람이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현지 언어와 문화에 능통하다면 한국인도 이중언어교실 선생님이 괜찮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그림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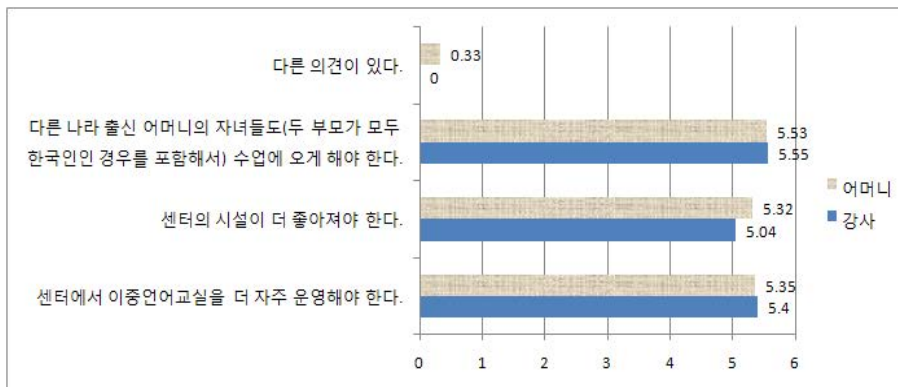


강사의 자격에 대한 의견

이중언어교실 운영센터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는 센터 운영자에게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을 피하기 위해 다소 피상적인 내용만 물었다. 선택항으로는 ‘센터에서 이중언어교실을 더 자주 운영해야 한다, 센터의 시설이 더 좋아져야 한다(교실의 크기, 컴퓨터, 스피커, 책상, 의자 등), 다른 나라 출신 어머니의 자녀들도(두 부모가 모두 한국인인 경우를 포함해서) 수업에 오게 해야 한다’ 등을 제시하였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은 제시된 선택항 모두 큰 차이 없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근소한 차이로 ‘수업 참여자의 확대 또는 수업 개방’과 관련된 항이 1위를 차지하였다. 자세한 응답 결과는 다음의 그림 13과 같다.

그림 13

운영센터에 대한 의견



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부모의 언어에 고루 노출되게 함으로써 연령에 맞는 발달 단계를 순조롭게 이행하게 하는 교육적 배려로서 이중언어교육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이중언어교육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 들어 국내에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이중언어교실의 운영과 관련된 요구에 초점을 맞추어 이중언어교실의 현황과 발전에 대한 의견을 분석하였다.

아동기는 가변성이 크고 발달이 빠르며 인간을 결정짓는 시기이기 때문에 인간발달의 그 어느 시기보다 교육의 중요성이 높다. 또한 아동기 발달은 발달의 기초성, 발달의 적기성, 발달의 누적성, 발달의 불가역성 등을 특징으로 한다(성영혜 외, 2001, pp. 94-98). 따라서 이 시기에 제대로 된 이중언어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아동의 나머지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인 교육적 노력이라 할 수 있다. 특히나 어머니와의 언어적 교류에서 결핍의 가능성이 우려되는 다문화가정의 아동에게는 이중언어교육이 인지적, 정서적 발달의 측면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작용을 할 것이다.

최근의 한 조사(성상환 외, 2011)에서 이주민의 언어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묻는 질문이 있었다. 이에 응답한 이주민 가운데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꼽은 경우가 37.6%로 가장 많았지만, 아동을 위한 이중언어교육 지원 프로그램(23.8%) 또는 가족과 사회 구성원을 위한 이중언어교육 지원 프로그램(22.8%)이라고 응답한 예를 더할 경우 반수에 육박하는 46.6%의 이주민 응답자가 이중언어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점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중언어교실 프로그램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표 6

결혼이민자의 국적별·성별 현황(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1년 10월)

	계	중국 (전체)	중국 (한국계)	베트남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몽골	기타
전체	143,687	64,842	29,739	36,579	11,034	8,094	4,521	2,593	2,398	13,626
남성	19,514	11,471	7,615	180	980	220	5	43	58	6,557
여성	124,173	53,371	22,124	36,399	10,054	7,874	4,516	2,550	2,340	7,069

또한 다문화가정을 구성하는 결혼이민자의 성별 현황에서 여성이 전체 결혼이민자 143,687명 중 124,173명으로 86.4%를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다문화가정 구성원을 위한 이중언어교육은 어머니 또는 아내의 모어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뜻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국적별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 45.1%, 베트남 25.5%, 일본 7.7%, 필리핀 5.6%의 순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국적별 현황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중언어교실 운영 언어의 현황과도 맥을 같이한다. 사람이 있는 곳에 교육이 있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45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수합된 설문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이중언어교실 강사, 다문화가정 자녀의 어머니, 이중언어교실 운영 현황 등에서 중국이 1위, 베트남이 2위를 차지하여 앞의 표 6에 나온 결혼이민자의 국적별 현황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이중언어교실의 운영 현황을 정리해 보면 운영 횟수는 한 달에 8번 이상이 31개소(68.9%), 회당 수업시간은 1시간 이내가 32개소(71.1%)로 가장 많았다. 각 센터별로 참여 학생 수는 11~20명이 20개소(44.4%), 10명 이내가 19개소(42.2%)로 엇비슷하였고, 수업당 학생 수는 8~10명이 18개소(40%)로 제일 빈도가 높았다. 관리자들은 이중언어교실을 운영하면서 가장 중시하는 목적 또는 취지가 학생의 어머니 나라에 대한 이해(20명, 44.4%)라고 한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이중언어교실을 운영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효과 중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는 학생의 이중언어능력 신장(19명, 42.2%)이 제일 많이 꼽혔다. 현재 확보하고 있는 자료 중 가장 많은 것은 어린이용 책(18명, 40%)이었다.

설문에 응답한 이중언어교실 강사도 수업 개설 횟수가 한 달에 8번 이상(33건, 60%), 회당 수업시간이 1시간 이내(38건, 69.1%), 수업당 학생 수가 8~10명(20명, 36.4%)이라고 한 경우가 가장 많아 관리자의 응답과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수업 시간에 주로 사용하는 언어로는 한국어를 선택한 경우가 34명(61.8%)이었으며 수업 시간에 한국어를 50% 정도 사용한다는 응답이 17명(30.9%), 30%와 70%라는 응답이 각각 10명씩(18.2%) 있었다. 회당 수업준비 시간은 1시간 이상 2시간 이내라는 응답(26명, 47.3%), 수업준비 시 학생들이 재미있어 할 주제를 제일 많이 고려한다는 응답(35명, 63.6%)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강사들은 수업 준비 시 수업 목표를 세우는 것(21명, 38.2%)을 가장 중시하며, 수업진행 시 어린이용 책(24명, 43.6%)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진행 시 선택하는 활동 유형은 교사와 전체 학생(12명, 21.8%), 짝 활동(11명, 20%), 모둠 활동(10명, 18.2%)이 거의 비슷한 수로 나왔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어머니들은 2명(71건, 62.3%)의 자녀 중 이중언어교실에 1명을 참여시키는 경우(89건, 78.1%)가 가장 많았는데, 가정 내에서 주로 한국어를 사용한다는 응답(96건, 84.2%)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중언어교실에 자녀를 참여시키는 횟수는 한 달에 6번 이상(67명, 58.8%), 참여기간은 2~3달(67명, 58.8%)이 1위 응답으로 나왔다. 이중언어교실에 자녀를 참여시

키는 이유는 ‘언어를 더 많이 알면 좋으니까’라고 응답한 경우(67명, 58.8%)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를 이중언어교실에 계속 보내겠다(107명, 93.9%)는 응답이 절대 다수였는데 그 이유로는 자녀가 비슷한 아이들과 만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어머니들이 이중언어교실에서 자녀에게 성취시키고 싶은 정도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까지(51명, 44.7%)라고 한 경우가 제일 많았다.

학생 또는 자녀의 태도와 능력에 대해서는 관리자와 강사 모두 학생들이 선생님의 한국어를 잘 알아듣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어머니들은 자기 자녀들이 자신을 좋아하거나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여기고 있었으며 한국어 능력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자녀들이 어머니 나라의 말을 잘한다거나 배우고 싶어한다고 보는 경향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중언어교실은 주당 2회 1시간 이내의 수업에서 10명 안팎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소규모 비정규 과정이며 이 수업에서는 어린이용 책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어머니 나라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개설되는 경우가 많지만 운영 효과로는 학생의 이중언어능력 신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중언어교실이지만 이 수업에서는 한국어가 주로 사용되며 강사들이 아동 대상의 재미있는 주제를 다루기 위하여 수업 목표 설정을 중시하며 수업 활동 유형은 일반 교실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가 골고루 선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이중언어교실 참여기간과 횟수는 비록 적었지만 어머니들이 자녀의 언어교육을 목적으로 비슷한 또래를 만날 수 있는 장으로서의 이중언어교실에 지속적인 참여를 희망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황으로 볼 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중언어교실은 아직 미비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어머니들의 기대 수준에 비해 아동의 흥미나 관심도는 비교적 낮은 편이기 때문에 아동의 이중언어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이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중언어교실의 발전과 관련해서 이중언어교실 운영 매뉴얼 워크북의 필요성은 대다수의 강사들이 전문적인 교사가 아니며 스스로 만들어 가는 교수요목과 교재에 대해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현실에서 제기되었다. 설문에 응답한 관리자의 95.6%와 강사의 89.1%가 교사의 수업 운영에 지침이 될 만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관리자 가운데 97.8%와 강사 중 90.9%에게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가 들어간 워크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표준화된 운영 지침과 자료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매뉴얼과 워크북의 용도로는 수업 내용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의 비중이 가장 높았는데, 수업내용에 대해서는 강사와 어머니 모두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언어 표현을 가장 많이 꼽았다. 수업방법에 대해서는

재미있는 활동이 가장 많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연령별 분반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중언어교실 강사에게 필요한 자격으로는 전문적인 교육 자격이라는 의견이 제일 많았다. 설문에 응답한 강사의 학력에서 고졸이 32.7%로 가장 많았고 교수경력이 6개월 이하인 경우가 85.4%에 해당하는 현실로 볼 때 강사 교육의 중요성은 재론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⁹⁾ 이중언어교실 운영센터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는 다른 나라 출신 어머니의 자녀들도(두 부모가 모두 한국인인 경우를 포함해서) 수업에 오게 해야 한다는 응답이 1위를 차지하여 수업 참여자의 확대 또는 수업 개방에 대한 요구가 큼을 알 수 있었다. 그 밖의 요구로는 놀이 교구, 문화 자료, 교구 제작 사이트 등 교육 자료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제기되었다.

이 글에서 논의하였던 이중언어교실은 대개 ‘부분적으로 한국어 이외의 다른 언어적 배경을 가진 아동’들을 위한 제2언어 습득과 관련이 된다. 이들의 언어능력과 정체성 발달의 근본이 되는 개인의 언어적 특징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이 고려되어야 개인과 사회를 위한 바람직한 이중언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중언어교육을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계승어 사용 능력을 신장시키며 한국어로 자신을 재발견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하는 것은 장차 해당 개인은 물론 한국 사회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씨앗을 뿌리는 일이다.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중언어교육 관련 정책 결정자, 운영자, 교사, 학부모 등의 인식이 더욱 고양되어야 하고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교재가 개발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문적인 교사의 양성이 시급하다. 이 글이 국내 이중언어교육의 일면만을 다루었다는 한계가 있지만 이 글에서 정리한 여러 의견과 문제점들은 앞으로 이중언어교육 관련 논의가 발전하는데 하나의 거름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도 언어와 관련된 ‘학습 부진아 제로(No Child Left Behind)’의 시책들이 다양하게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

⁹⁾ 여성가족부 등의 위탁으로 이중언어교실 또는 언어영재교실 관련 이중언어 강사 양성교육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거의 단기과정에 불과한 형편이다. 이중언어교육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정식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이중언어 예비교사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 이 연구의 일부는 호원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참고문헌

-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 편. (2009).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실제(개정판)*. 양서원.
- 권순희. (2009). 이중언어교육의 필요성과 정책 제안. *국어교육학연구*, 34, 57-115.
- 성상환, 권오중, 민병욱, 박혜원. (2011). *다문화 인권정책에 대한 이주민 당사자 정책 수요조사 연구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 성영혜, 김광웅, 이재연, 서영숙, 이소희. (2001). *아동심리학*.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 송영복. (2010). 초등 다문화 학습자 대상 이중언어 교육 사례 연구. *이중언어학*, 43, 247-275.
- 조수진, 윤희원, 진대연. (2008). 다문화가정자녀를 위한 '학습 한국어' 교재 개발의 방향. *이중언어학*, 37, 235-264.
- 진대연, 김현주, 강복정, 지화연. (201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중언어교실 운영프로그램 매뉴얼*.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 진대연. (2011). 다문화 사회의 국어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에 대하여. *다문화 시대의 학교 교육*, 국제한국어문화학회 2011년 춘계 학술대회 자료집 별첨 자료.
-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2011).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1년 10월 호]*. 법무부.
- Appel, R., & Muysken, P. (2008). *Language contact and bilingualism* (김남국 역). 서울: 도서출판 동인. (원전은 2006에 출판)
- Baker, C. (1995). *A parents' and teachers' guide to bilingualism*. Multilingual Matters Ltd.
- Baker, C. (2006). *Foundations of bilingual education and bilingualism (4th edition)*. Multilingual Matters Ltd.
- Banks, J. A., & Banks, C. A. M. (Eds.). (2005). *Multicultural education: Issues and perspectives (5th edition update)*. John Wiley & Sons Inc.
- Banks, J. A. (2001). *Handbook of research on multicultural education*. Jossey-Bass Publishers.
- Bhatia, T. K., & Ritchie, W. C. (Eds.). (2006). *The handbook of bilingualism*. Blackwell Publishing.
- Hamers, J. F., & Blanc, M. H. A. (2000). *Bilinguality and bilingualism (2nd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polsky, B., & Hult, F. M. (Eds.). (2008). *The handbook of educational linguistics*. Blackwell Publishing.

진대연 (제1저자)

호원대학교 한국어학과 / 한국어교육원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호원대3길 64

전 화: 063) 450-7681

이메일: jdy0917@howon.ac.kr

강복정 (제2저자)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전국다문화가족지원단) 다문화가족본부장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426-1

전 화: 02) 3140-2203

이메일: bogjeong@hanmail.net

Received on June 29, 2011

Reviewed on Oct 22, 2011

Revised version received on Nov 21, 2011

Accepted on Dec 2, 2011